

골프코스 조경수 관리

■ 골프장 : 00컨트리클럽

■ 진단일 : 2020년 7월 16일

■ 진단자 :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김 호 준

1. 모과나무 관리

(1) P관사 옆 모과나무 3주

① 현 상태

■ 수세증진, 수세회복 30%

- 2020년 6월 2일 수세회복 및 증진용 뿌리권 시술. 그 결과 수세 30%를 회복함.(시술 전 가지 및 줄기 고사율은 ㉠ 나무 40% ㉡ 나무 30% ㉢ 나무 50% 였음. 박피율은 ㉡ 나무가 가장 심한 상태로서 80%에 이름.)
- ㉠ 나무와 ㉢ 나무는 줄기에서 장래 수관부를 형성할 맹아가 나왔으며, ㉡ 나무는 잔가지 끝에서만 새순이 발생하였음.
- ㉠ 나무와 ㉢ 나무의 녹색도는 높으나 ㉡ 나무는 다소 떨어진 상태임.
- 3 나무 모두 가벼운 식엽해충 피해가 있었음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관수 철저

- 2020년 6월 2일과 동일(뿌리권의 수분상태를 1회/1주 점검하여 필요 시 유공관을 통하여 관수하고 멀칭 위에도 관수할 것.)

■ 이상 유무 관찰

- 2020년 6월 2일과 동일(나무에 이상의 유무를 철저히 관찰하고 이상이 발현될 시 즉시 「그린과학기술원」에 연락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.)

■ 2020. 6. 2. 뿌리권 시술 모과나무 3주 사례



■ ㉞ 나무의 줄기 맹아 사례(2020. 7. 16.)



2. 목련 관리

(1) 00 #9홀 목련 3주

① 현 상태

■ 수세증진 미약

- 2020. 5. 27. 검진 이후 3주 모두 시비(그린 후방 목련은 20개, 그린 후방 연못가 목련은 25개, I. P. 우측 연못가 목련은 25개)
- 3주 모두 2020. 5. 27. 검진당시보다 엽밀도와 잔가지 밀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녹색도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- **그린 후방 목련** : 목련은 햇빛 요구도가 높은 수종임. 그럼에도 그린 후방 목련은 주변의 큰 나무 그늘 때문에 개화하지 못함.
- **그린 후방 연못가 목련** : 시비하였으나 수세 회복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 2021년 5월 수세 증진용 뿌리권 기술을 실시해야 할 것임.
- **I. P. 우측 연못가 목련** : 그린 후방 연못가 목련과 마찬가지로 시비하였으나 수세 회복이 불량하므로 2021년 5월 수세증진용 뿌리권 기술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2020. 7. 16. 그린 후방 목련



■ 2020. 5. 27. 그린 후방 목련



※ 2020. 5. 27.보다 수관부가 다소 확장된 2020. 7. 16.의 그린 후방 목련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시술 및 이식

- ㉠ 그린 후방 연못가 목련과 I. P. 우측 연못가 목련은 2021년 5월 수세 증진용 뿌리권 기술이 필요함.
- ㉡ 그린 후방 목련은 햇빛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동 식재함이 바람직 함.

3. 구상나무 관리

(1) 진입로 및 00 #3홀 구상나무

① 현 상태

■ 매미나방 피해 발생

- 잡식성 해충 「매미나방」이 잎을 갉아먹어 잔가지만 남았으며, 잎이 없는 잔가지는 고사가 진행되고 있음.
- 피해 유형은 수관부 상단이 가장 심하고, 피해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됨.
- 매미나방 발생은 전국적이며 그 피해도 막심한 실정임.

■ 매미나방 피해로 탈엽 및 고사 진행 중인 진입로 구상나무(2020. 7. 16.)

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새잎 발생 여부 관찰 및 벌채

- 수분공급이 충분한 장마기에 새잎이 발생할 수도 있음.
- 장마가 끝나도 새잎이 발생하지 않는 나무는 벌채 제거.

■ 시비

- 나무에서 1.5m 이상 이격한 거리에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20cm 간격의 구멍을 뚫고 고품복합비료 1개/1구멍씩 ㉠ 잎이 없는 나무는 25개, ㉡ 잎이 있는 나무는 35개를 각각 시비할 것.

■ 관수

- 장마가 끝나고 가뭄이 극심할 경우에는 피해목을 대상으로 지중관수 할 것.

■ 고사 진행 진입로 구상나무



■ 고사 진행 가지(2020. 5. 27.)



4. 소나무 관리

(1) 클럽하우스 및 P 하우스 주변 소나무

① 현 상태

■ 수세 양호

- 수세 극히 양호한 상태이고 녹색도 양호, 잔가지 밀도 또한 적당함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장마 후 관리

- 장마 후 잎의 녹색도가 떨어져 탈색이 되는 경우 응애약을 수관살포 할 것.
- 약제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응애약이라면 모두 효과가 좋음.
- 약제 살포 전 「그린과학기술원」에 수관부 사진을 촬영, 송출하여 살포여부 및 살포적기 판단을 받을 것.

- 특히, **응애약은 약해가 있으므로 표준 희석농도를 지킬 것.**

■ 수세 양호한 p 하우스 주변 소나무 사례(2020. 7. 16.)

